

여성 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

도, 25일 ~ 내달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도·시군·경찰·민간 연합 캠페인 진행 스톱킹범죄 예방·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여성 폭력 더 이상은 안돼요” 전북도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북도경찰청·시군·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 등과 함께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자

2020년부터 운영되는 주간으로 폭력없는 사회 실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이다.

도는 스톱킹 범죄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으로부터 도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읍역(11월 28일), 전주 오거리광장(11월 29일), 객사(11월 30일) 등에서 민·관·경이 연합하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스톱킹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포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여성폭력 추방주간 슬로건 제창 등을 진행한다.

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스톱킹 피해자를 우선 선정하여 CCTV 설치 및 안심장비(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

대용 비상벨) 등을 지원하는 ‘1인가구 주거안전 방안 지킴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 신미애 여성가족과장은 “우리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대상 시상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6개 기업 노사 대표와 산업평화 대상으로 선정된 임택 전북권역KT노조위원장에게 시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대상 시상식 개최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6곳·산업평화 대상 1명 수상... 사회적 책임·상생·협력 노사문화 확산 기대

전북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한국노총 전북본부 권기봉 의장, 전북경영자총협회 김동환 상임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산업평화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하는 '전라북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대상'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기업과 노동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는 △대기업 부문에 SK네슬리스, △중견기업 부문

에 (주)유니드 군산공장, (주)아이씨엠씨, △중소기업 부문에 삼화인테크놀로지 군산공장, 상용기초소재(주) (유)정인테크 등 총 6개 사업장이 선정됐으며 대기업 1천5백만원, 중견기업 1천 2백만원, 중소기업 7백만원 등 총 6천만 원의 노사화합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원된다.

산업평화 대상은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노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KT노총조합 전북권역 임택 의장이 선정됐으며, 별도의 부상은 없다.

김관영 도지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 도내 기업 및 노동자의 좋은 본보기가 돼 주시길 고맙다”며 “우리가 도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로 대만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이제 아름다운 호남해안로드 마음껏 즐기세요”

익산국토청, 호남 서남해안 드라이브 16개 코스... 카카오톡·네이버·T-MAP안내기능에 탑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창희)는 호남 서남해안 지역의 수려한 해상경관과 연륙교, 연도교를 마주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 16개소를 주요 플랫폼인 카카오톡, 네이버, T-map에 반영했다.

호남해안로드는 새만금 지역부터 시

차해 백수해안도로,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여수고흥 간 해상도로 등 각 지역 특색에 맞춰 16개 코스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어플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직접 접속해 다운을 받아야만 해안로드 드라이브 코스를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각 플랫폼 카카오톡, 네이버, T-map과 협업을 완료해 ‘호남해안로드’ 또는 ‘호남해안로드 00코스’로 검색만 하면 서남해안 지역의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익산국토청은 올 상반기 해안

로드 지도 제작 및 안내표지판 정비까지 완료하고, 이번에 플랫폼 반영까지 완료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서남해안 지역의 명품 해안도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익산국토청 김용주 도로관리과장은 “코로나 시기에 답답했던 일상에서 관광산업을 점차 확대되는 시기에 호남 서남해안 지역에 수려한 경관과 명품 해상교량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지역먹거리 ‘최고’ 입증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전국 최초로 참여·성적우수 지자체 선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지자체별 지역먹거리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2022년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참여 및 성적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역먹거리 지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기존(2020년~2021년) 로컬푸드 지수를 확장하여 지역별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먹거리 정책 활성화 정도와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활동을 17개 지표로 측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로 도민의 먹거리 보강과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도 먹거리계획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특별한 지역산순환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 도의 정책적 노력과 생산자·소비자의 상생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로컬푸드 발상지에서 지역먹거리 정책 실현의 선도 지역 전라북도도 확대·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도, 전국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상 수상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제4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전북도가 수상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상’은 자치단체 협의체(49개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체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수행 기관에게 주는 상으로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평가에서 도는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구축·운영 △전국 최초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준공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2회 개최 등의 다각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민·관이 더욱 협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촘촘히 수립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유망중소기업 12개 기업 선정

5년간 도 경영안정자금 융자 5억원까지·이차보전 상향 등 지원

전북도는 24일 12개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주)퓨코(대표 성문수) △엔에프푸드(주)(대표 최항석) △에스컨드빌(대표 김재근) △(주)미래클(대표 이재환) △(주)퓨어팜(대표 정연석) △농업회사법인 (주)늘푸른(대표 김경화) △서은테크(대표 유봉상) △(주)유비쿼터스통신(대표 문영실) △(유)진테크(대표 진규식) △(유)테시아앤씨(대표 이동주) △농업회사법인 (유)유지지기(대표 심은숙) △(유)티엠에스(대표 박환영) 등 12개 기업이다. /김경수 기자

12개 유망중소기업은 24일부터 2027년 11월 23일까지 5년간 인증받게 되며, 도 경영안정자금이 최대 5억원(일반기업 3억원)까지 상향 지원되며, 이차보전도 최대 3%(일반기업 2%)까지 지원된다. 올해에는 총 31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약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랜기간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해온 기업들이 오늘처럼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고 더 나아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지정·안전관리위원회 지정기관 국민안심병원

축전주매일 창간

군산의료원 정상운영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입원 및 외래 진료 전면 정상화
-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 말기 암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호스피스 나눔병동 운영
- 혈관, 관상동맥(협심증·심근경색)조영술 시행

각종 평가 우수기관

-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A" 등급
-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9회 연속 "T" 등급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470000 Gonsan Medical Center
대표전화 063-472-50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